장애인 카드뉴스

-1401고경태-

장애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럼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까요?



장애인도 할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장애인 수영 국가대표 조원상 선수는 선천적 장애로 5세 때 지적장애 판정을 받았지만 이후 초등학교 2학년 때 체육 선생님의 권유로 시작한 수영을 통해 인생의 전환점을 맞고 2012년 세계신기록을 세우고, 세계랭킹 1위를 달린 대한민국 장애인 수영의 간판 스타가 되었습니다.



항상 쉬운 것은 아니었다.

슬럼프보다 심적으로 아픔이 있어서 아시안게임 준비과정이 힘들었고 매일매일 울면서 열심히 훈련하였다.

준비를 하면서 많이 힘들었고 힘들 때마다 한 사람의 사진을 보면서 버텼다. 소중하고 아끼던 사람이었는데

수영이 꿈이다 보니 그 사람을 포기했다. 지난 두 달간 사진 한 장 보면서 정말 열심히 했다.

기사:[장애인AG]'수영 첫 베테랑 조원상 감동 인터뷰 " 어린선수에게도 배울 점이 있다 " 중



주변의 장애인들에게 작은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준다면 그들에겐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